

스포츠 동아

sportsdonga.com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아이 때문에 한때 시즌 포기 고민했지만...”

아빠 류현진, 첫 실전피칭 합격!

토론토 자제 청백전 5이닝 4K 1실점 구중 점검



류현진

‘괴물’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첫 실전등판에서 호투하며 새 시즌 개막을 향해 순항했다.

류현진은 14일(한국시간)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의 로저스센터에서 열린 자제 청백전에 선발등판해 5이닝 4안타 무4사구 4삼진 1실점을 기록했다. 투구수 59개로 5이닝을 가볍게 지웠는데, 스트라이크가 40개였을 정도로 공격적 투구였다. 70구 투구가 예정됐기 때문에 등판을 마친 뒤 불펜으로 이동해 9구를 더 던지고 일정을 마무리했다.

MLB닷컴은 “토론토가 2020시즌 성적을 내기 위해선 류현진이 에이스가 돼야 한다. 이날 첫 등판에서도 동료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다양한 구종을 검증했다”고 평가했다. 류현진은 “개막에 맞춰 이닝과 투구수를 늘리고 있다. 개막이 연기됐을 때 몸 상태를 조금 떨어뜨렸고, 이후 주 5회씩 훈련하며 다시 끌어올렸다”고 전했다. 피트 워커 투수코치는 “류현진이 매우 사교적이라 많은 투수들이 류현진을 좋아한다”며 “오늘은 커브와 체인지업이 좋았다. 커터를 미세하게 교정하고 있다”고 칭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3개월 넘게 미뤄진 개막. 버스터 포지(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데이비드 프라이스(LA 다저스) 등 여러 스타들이 가족을 위해 시즌 불참을 선언하고 있다. 류현진도 5월 소중환 첫 딸을 얻으면서 고민이 깊어졌다. 하지만 류현진은 “한때 시즌 포기를 고민했지만 지금은 팀의 철저한 관리 덕에 안전하게 훈련을 소화 중”이라며 “호텔과 경기장만 오가고 있지만 운동장에 나올 수 있다는 자체가 괜찮다”고 밝혔다.

‘괴물투수’로 불리지만 그 역시 평범한 한 사람이자, 이제는 아버지다. 고민이 될 법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류현진은 다시 스파이크 끈을 동여매고 있다. 2020시즌 또 하나의 이야기를 쓸 준비는 순조롭다. 류현진의 시선은 25일 탬파베이 레이스와 치를 개막전에 오롯이 고정돼있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기성용 K리그 복귀 또 물 건너가나

선수-구단 1차 협상...점점 없이 의견차만

FC서울 “돈가뭄...최선의 조건 제안”
기성용 측 “첫 입단 협상 때와 비슷”
측근 “기성용이 거부 후 의견 전달”
구단은 “입장 못받아...답 기다린다”
22일 이적시장 마감...극적타결 관심

K리그1(1부) FC서울과 전 국가대표팀 주장 기성용(31)의 동행은 이뤄질 수 있을까. 일단 상황이 긍정적이지 않다. 구단과 선수는 서로의 의사만 확인했을 뿐 전혀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아까운 시간만 흘려보내고 있다.

마요르카(스페인)에서의 짧은 여정을 마친 기성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른 2주간의 자가 격리를 마칠 무렵인 지난 주, 서울이 영입 제안을 먼저 건넸다. 하지만 축구계 소문에 따르면 꽤 좋았던 조건은 여전히 선수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기성용의 한 지인은 14일 “(서울의 조건은) 지난 연말 협상 때와 거의 비슷했다더라. 달라진 것이 없다 해도 무방하다”고 귀띔했다. 이에 강명원 서울 단장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구단 재정이 넉넉지 않다. 우리로서는 최대한 조건을 전했다. 그 이상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 연말에도 협상했으나 합의하지 못했다. 2009년 셀틱FC(스코틀랜드)로 이적하며 유럽생활을 시작한 기성용은 뉴캐슬(잉글랜드)과 계약이 만료된 지난 연말 ‘K리그 복귀 시 컴백’ 조항에 따라 서울과 교섭했지만 결렬됐다. 이후 K리그 유턴 계획을

미룬 채 마요르카와 단기계약을 했던 기성용은 지난달 말 귀국했다.

선수의 또 다른 측근은 “(기성용이) 서울의 최근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이를 구단에도 전달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울 구단은 “선수 입장을 아직 받지 못했다. 여전히 기다리고 있다”고 부인했다. 최근 제안에 대한 부정적 의사를 회신했다는 선수와 그렇지 않다는 구단 사이에 자칫 불필요한 공방이 오갈 소지가 생긴 셈이고, 사실상 협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무의미할 수 있지만 굳이 따지자면 다급한 쪽은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와 유럽 여러 팀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선수가 아닌 구단이다. ‘리얼 툴(성인용품 인형) 파문’으로 올 시즌을 뒤숭숭하게 시작한 서울은 11라운드까지 마친 ‘하나원큐 K리그 1 2020’에서 3승1무7패로 10위까지 추락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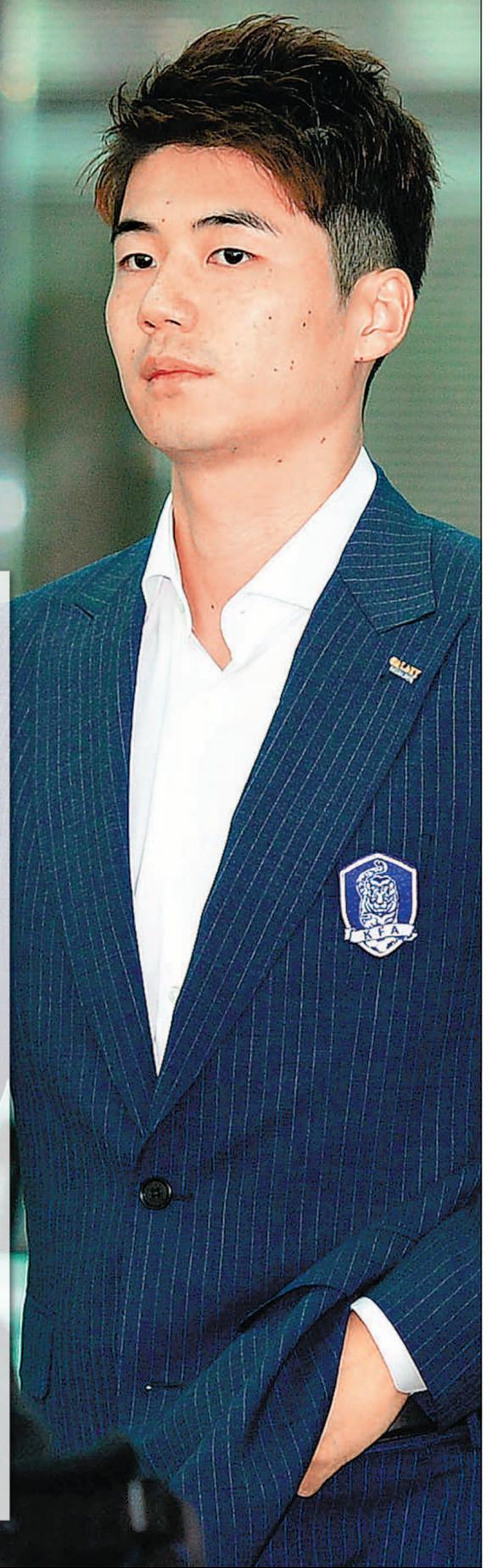
성난 여론을 달래고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선 기성용 이상의 대안이 없다는 지적이다. 특급 선수를 또 다시 놓쳤을 때의 후폭풍 역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도 서울이 기성용 영입 의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일각에선 후반기를 겨냥한 ‘6개월 단기계약’을 구단이 추진했다고 하지만, 서울은 금전적 조건과 별개로 최소 2년 이상을 제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K리그 여름 선수이적시장은 22일 끝난다. 마땅한 반전 카드가 없는 서울이 망설임 여력도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기성용의 K리그 유턴은 가능할까. 친정 FC서울로부터 최근 제시받은 조건이 협상 결렬로 끝난 지난 연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단, 더 급한 쪽은 구단이라는 점에서 22일 종료될 여름 선수이적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스포츠동아DB



1위 대한민국 대표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ABC 공인 유료·발행부수 3년 연속 1위

2연승 노리는 ‘18세 괴물골퍼’ 김주형, ‘변형 스테이블포드’ 적응이 열쇠 ▶ 8면



KMGM
HOLD'EM & EVENT PUB

KMGM 홀덤 이벤트룸 ROAD SHOP 런칭

외식 유통 프랜차이즈 KMGM에서 미래를 함께하실 점주님을 모집합니다.

▶ 30평미만으로 창업 가능 ▶ 1억미만 소자본 창업 ▶ 업종변경가능

창업상담 : 1644-7861